

인 사 말 씀

김해김씨 석성공파 후손님 제위

그간 안녕 하셨습니까?

뜻하지 않은 시국을 맞아 각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옆친데도친 격으로 긴 장마와 더위에 잘 지내셨는지요.

금년회기에는 저의 과 문중에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원로 종친께서(영암 김정태님, 서울 김삼배님, 전재무이사 김정연님, 세자정 종손 김윤배님 등이 애석하게도 별세하시고, 모든 분들이 종사에 큰 관심과 열정을 쏟았지만 특히, 이분들께서는 석성공파 문중 발전에 많은 업적을 남기신분으로써 지금까지도 엇그저게 뵈온 것 같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중앙종회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특히 올해는 금병재 보수공사에 종회 기금사용을 통과 허락해 주셔서(공사금 80,000,000, 추가공사 3,500,000) 솟을 대문을 제외한 모든 공사를 새롭게 단장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간 직접 일을 맡아하신 석회 재장님과 재섭 사무국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종회장을 비롯한 종원 여러분께도 종손으로서 고마움을 전하는 바입니다.

저희 종회가 항상 그러했듯이 전임 회장단과 여러분께서 경기, 서울과 전라, 제주에 이르기까지 우리 문중은 단합된 힘을 항상 보여 줬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종손저는 선대의 유지에 따라 조상님 받드는 일과 종원 상호간 우애를 위하여 사심 없이 항상 최선을 다 할 각오입니다.

이번 서울서 총회를 개최치 못하고 금병재에서 개최하게 되었지만 종원 여러분께서 다소 불편한 점이 있겠으나, 일 년에 한번인 시제에 파조님 모시는데 참례하셔서 많은 음덕을 받아 가시기 바라는 종손으로서 간절한 마음을 올립니다.

저는 종손으로서 당연히 할 일이지만 옛날에 선친님이 하던 되로 승선전, 화산재, 도유재, 금소재, 영모사 등과 대, 소 문중 방문을 비롯하여 참례하고 앞으로도 저와 석성공파 문중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각오입니다.

우리 석성공파 종원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 형제가 아닙니까? 김해 파조님의 시제에 미처 알지 못하는 종원에게도 널리 연락하여 다 같이 참례 합시다.

그리고 부족한 종손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오셔서 반갑게 손잡고 헤어질 때 즐거운 김해 여행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항상 선조님의 가호가 여러분께 내려지시기를 기원합니다.

2002. 10. .

김해김씨 석성공파

종 손 김 병 철 배상